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 '희망고문'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1930년대에 발표된 홍명희의 미완의 명저 '임꺽정'에는 최영 장군의 사당에 관련된 사연과 송악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축제 장면이 홍명희 특유의 된장 냄새 묻은 필치로 자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통나무 모닥불에 통돼지를 굽고, 거기 모인 이들이 그 통돼지구이를 몇 점씩 다 투어 뜯어먹으면서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제기차기와 윷놀이도 한다.

그렇게 뜯어먹은 통돼지구이를 사람들은 성계육이라고들 했다. 이성계가 돼지띠여서 그렇게 통돼지구이를 만들었단다. 이성계가 닭띠나 개띠였다면 통닭구이나 통개구이가 성계육이 됐을 것이다.

그 성계육 축제는 최영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면서 쿠데타로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에 대한 고려 유민들의 원한과 저주와 야유가 질펀하게 번지는 현장이었다.

관우나 악비 같은 중국 고대사의 비극적 영웅들이 중국 곳곳에 세워진 사당에서 두고두고 중국인들의 기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고려왕조의 비극적 영웅 최영 장군의 경우 관우나 악비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오지는 않지만 조선왕조 수백년 동안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만들어지고 그의 충정을 섬기는 민심이 그처럼 축제가 되고 민속이 되어 전해졌던 것 같다.

이른바 최고 존엄의 이름이 붙여진 성계육을 뜯어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그런 반체제적 민속이 봉건왕조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던 것인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민중적 에너지가 모임직한 일마다 미리 초를 쳐서 희석시키는 정권에 길든 언론 같은 것들이 물론 그 시대에는 물론 없었다.

하지만 당시 서슬 퍼렇던 시대에 이런 행위는 북한식으론 최고 존엄 모독죄, 우리식으로는 국가원수 모독죄쯤에 해당됐을 것이다. 백성들은 조선왕조의 원죄로 못 박혔기에 역모죄를 감당하면서까지 오히려 더 사납게 성계육을 뜯지 않았겠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은 물론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마음 놓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통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은 고려의 유민들은 마침내는 조선왕조의 최고 존엄 이성계를 맘 놓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다투어 성계육을 뜯어먹는 통쾌함을 맘껏 누렸던 것 같다.

그 시작은 필시 은밀했겠지만 은밀하게 시작되었을 그 모임이 축제가 되고, 민속으로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유포니, 종북이니 불온이니 하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고소하고 가두고 벌금을 물게 하면서 유신시대로, 삐라시대로, 서북청년단시대로 역사의 시계가 자꾸 거꾸로만 되감기는 것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다.

요즘 온라인에는 성계육보다 더 험악한 말들이 난무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희망고문'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뭔가를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때문에 두고두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희망고문, 따지고 보면 조선왕조의 성계육 축제도 오랜 세월을 두고 백성들이 견뎌왔던 희망고문의 결과물일 것이다.

희망이라는 설렘과 고문이라는 끔찍함이 난폭하게 야합해버린, 절망보다 더 지긋지긋하고 좌절보다 더 쓰라리고 체념보다 더 인간 존엄이 짓밟히는 게 희망고문이다.

눈 조심, 말 조심, 귀 조심 심지어 꿈까지 조심하면서 최고 존엄을 맘 놓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미워해도 괜찮은 그런 쾌감을 위해서라면 그런 고문쯤은 과연 견딜 만한 것인가.

그 나물에 그 밥, 걸레는 빨아도 걸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같은 말들 속에는 그 희망고문에 지친 비아냥들이 늘 민낯으로 깔려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그런 말들이 민망하기 그지없다.

의료칼럼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절염

정 우 빈
하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과장

관절염이란 대개 퇴행성 골관절염을 지칭하는 말로, 관절의 점진적인 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무릎에서의 관절염은 가동 범위가 넓으며, 동시에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무릎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관절 보다 퇴행성 골 관절염이 잘 오게 된다.

이러한 관절염은 50세 이상의 나이, 외상의 과거력,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의 염증 질환, 비만, 말초 신경 병증, 직업적 또는 스포츠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 등이 위험 요소가 된다.

퇴행성 골관절염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초기에는 많이 걷거나 심한 운동을 할 때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가 충분히 쉬면 사라진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장기간 걸을 때, 흐린 날씨일 때도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더 악화되면 가만히 있을 때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춥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악화되고, 운동할 때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무릎의 퇴행성 골 관절염은 그 진행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증상은 느끼지만 엑스레이 영상에서 큰 변화가 없는 단계이다. 이어 경미한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 영상에서도 심하지 않은 단계, 증상이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한 증상과 관절 간격이 완전히 없어지고 변형이 온 단계이다.

증상이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진 단계 이상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고려해야 한다. 심하지 않은 관절염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증상에 엑스레이 영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관절주사로 치료를 시행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슬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걸릴 위험도가 약 3.3배 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반대로 체중 감소를 통해 골관절염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논문 등이 많아, 비만은 골관절염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체중의 증가가 무릎으로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마찰이 연골의 손상을 가속시켜서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퇴행성 골관절염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점차적인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것을 뜻하며, 정상적인 관절로 돌아 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완치라는 개념은 맞지 않으며, 퇴행성이 천천히 진행되게 하거나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우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좋다. 붓고 열감 등의 염증 반응을 보인다면 소염 작용이 있는 약물의 복용 등을 해 주는 것이 좋으며, 급성기가 지나갔다면 무릎 주변의 근육 강화 운동 등을 통해 근력을 키워 주며, 전기 자극 치료나 온열 치료 등을 시행해주는 것이 좋다. 무릎 보호대 등의 보조기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연골액 주사 등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충분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 오늘은 현금이요, 내일은 약속어음이다

한 국 환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최근 뉴스에 의하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경제성장률이 전(前) 정부 12년도 2.7%에 이어 13년 3.0%와 14년 3.3%로 높아졌고, 수출액-무역흑자-무역규모에서 사상 최대치인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다. 또,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73.4%로 넓어졌다. 그리고 14년 고용지표에서 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사상 처음으로 65%를 넘어섰으나 실업률이 3.5%로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합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었으며, 특히 남성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4%로 여성보다 더 높았다.

이렇듯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큰 원인은 경제 둔화로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대졸자 10명 가운데 4명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취업 희망자가 적어 구인난이고 대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기관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소위 '미스매치(mis→match)'도 큰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크게 두 부류다. 학문중심(일반대학 4년) 대학과 직업교육(전문대학 2~3년) 대학이 그 것이다. 그동안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수 규모로 약40%, 입학정원 규모로 약 37%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 인원수를 보면 2012년도 약 4500명, 2014년도 4980명이 지원(약 5000명 증가)하였고, 등록률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 약 1100명, 2014년도 약 1280명이 등록하였다.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지원인원은 10.5%, 등록인원은 16.4%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입학이 점점 많아지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의 진학과 진로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멘토의 가이드를 받아 진학할 수 있는 상담 및 진로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학력·학벌 우선으로 진학이 이뤄지고 있어 입시 때마다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전문대가 취업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인기학과를 보면 간호보건과, 유아교육과가 있고 '미디어 시대'라는 트렌드에 맞춰 실용음악과도 경쟁률이 최고 218대 1일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웰빙생활과 미식가들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리과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농협대학, 골프대학, 세무대학, 자동차대학, 승강기대학이 뜨는 등 요즘 세상은 너무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 학력거품의 문제점이 컸으나 이제 그 해결책이 전문대학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학문중심의 대학보다는 실사구시의 실용적인 학과가 대세가 될 것이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세분화된 직업이 늘면서 전문대학에서는 실용적이면서도 특수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科)를 신설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직무능력이나 내용이 완전히 재편화(再編化) 되어있다.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요즘엔 '다품종 소량생산(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으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은 교육도 사회의 수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어 공급하는 시대다. 교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결국 특성화된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가치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은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요즘 사회에서는 취업 중심의 교육기관이 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엔 기업들이 대중적인 상품보다는 특정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개발·공급하듯이, 전문대학에서도 거품뿐인 인기를 좇아 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최적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소위 '좋은 대학'을 지원했다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나 과를 선택해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또 취업하여 당당히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현금이요, 내일은 불투명한 약속어음이다'는 말로 필자의 마음을 대신하고 싶다.

社 說

# 한빛원전 불안한 가동에 불신만 증폭된다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원전 측이 3~4호기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낮춰 운전하는가 하면 증기발생기를 파손시키는 이물질이 발생기 내에서 발견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또 올 들어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개수를 허용치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0년부터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 흐르는 냉각재 온도를 화씨 621도에서 614도로 낮춰 운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은 세관의 재질이 부식과 균열에 취약해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를 낮췄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수원의 조치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15년 전부터 3~4호기 세관의 재질상 결함을 알고도 단지 온도만 내려 가동해왔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안전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낮춰 운영하는 곳은 한빛원전이 유일하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2대에서 89개의 이물질을 발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물질은 증기발생기 파손의 주범이지만 원전 측은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파손시 관을 막고 사용할 수 있는 관막음을 허용치 이상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한 기준치를 깨는 것은 안전의 한계를 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나섰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최근 "한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대부분이 나라 밖으로 피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 가동의 제1원칙이 안전임을 유념해야 한다.

# 광주U대회 카운트다운, 저비용 고효율로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이 26일로 D-99일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광주U대회는 170개 국에서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진 등이 참가해 지구촌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광주U대회는 지난 1997년 제18회 전주·무주동계U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U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U대회 사상 가장 규모로 치러진다 하니 기대가 그만큼 크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붐 조성에 나섰고 경기장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개막행사와 대회 운영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U대회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KTX 증편 운행과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U대회가 흥행과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 판문점 성화 봉송, 북한 응원단 참가 등 3대 이벤트가 성사돼야 하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광복 70년, U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한다면 남북한 화해는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매끄러운 대회 운영과 흑자대회 역시 성공 개최의 전제 조건이다. 운영이 엉망이고, 빚더미를 안게 된다면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최악의 대회 운영과 천문학적 적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D-99일, 부족한 숙박시설과 교통 편의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U대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은 이제 시민에게 달려있다.

無 等 鼓

## 이야기 할머니

1994년 프랑스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를 보고 참 이색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영화 속 여 주인공은 '가정을 방문해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낸다. 수요가 없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와 장애인, 노인과 정년퇴직자, 독신자 등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전문 직업인으로 나서면서 다양한 군상들과 겪는 이야기다.

19세기 서양에선 작가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는 낭독회가 인기였다.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낭독회의 스타였는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개월 이상 어조와 몸짓을 연습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는 전기수라는 전문 이야기꾼이 있었다. 18~19세기는 춘향전·심청전·임경업전 등 고전소설이 봇물을 이루던 시기였다. 하지만 책이 비싼데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의 인기가 대단했다. 서민들은 이들이 낭독 중간 중간에 들려주는 내용 해설이나 논평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얻고 작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따라가며 책읽는 즐거움을 맛봤다.

전기수들의 책 읽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정조 때는 전기수의 얘기를 듣던 구경꾼이 주인공이 좌절하는 부분을 듣고 흥분해 담배 써는 칼로 전기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기수는 문맹인 서민들만을 상대로 하지는 않았다. 양반집의 규수나 한양의 부자들은 전기수를 집으로 불렀다. 이들 사이에 가장 이름 난 전기수가 이업복이다. 청지기 출신의 이업복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낭랑한 목소리와 풍부한 감성으로 양반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규방 여인들은 이업복의 타고난 읽기 능력에도 끌렸지만 중성적인 외모에서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에 즐겨 찾았다고 한다.

전기수가 '이야기 할머니'로 되살아나고 있다. 2009년 처음 시작한 이야기할머니사업에 참가해 이야기꾼으로 공인받은 할머니들이 전국적으로 2100명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도 180여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유치원 등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할머니들의 '무릎교육'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은 위대한 스토리텔러다'라는 광고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FAX 222-4918〉 | 〈FAX 222-8005〉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경제부 2200-632 |
| 정치부 2200-642 | 문화생활부 2200-661 |
| 〈대표FAX 222-4918〉 | 여론매체부 2200-696 |
| 사회부 2200-663 | 체육부 2200-697 |
| 〈대표FAX 222-4267〉 | 사진부 2200-693 |
| | 조사부 2200-571 |
| |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 〈FAX 227-9500〉 〈FAX 227-9500〉 |
| |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 |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